

# 영적 상징과 꿈 <39>

## 부제: 주님이 해주시는 꿈 해석 4

자, 오늘도 우리의 꿈을 이긴자께서 친히 해석하고 설명해주시는 호사(好事)를 누리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도 10

“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머리 모양이 절에 가면 미륵 부처님의 꼬불꼬불한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둥글둥글한 머리가 백인지, 천인지 크기가 길고 짧은 게 하나도 없고 똑같은. 그런 머리로 나타나셨습니다.”

### 이긴자

“꿈에 내 주님을 봤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고무고루 고무고루 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을 가리킨 거야. 털모(毛)자는 마음 심(心)자 하고 생긴 게 비슷하죠? 마음이 고무고루, 자신의 마음이 고무고루라는 거야.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변덕 부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항상 똑같이 고무고루 좋다는 거야.”

### 주해(主解)

: 꿈꾼 분은 아마도 불자(佛子) 출신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주님의 ‘둥글둥글한 머리’는 나발(螺髮)입니다. 나발(螺髮)은 부처의 신체적 특징인 32상호(相好)의 하나인데 소라 나발(螺)머리털 발(髮) 즉, 소라처럼 말려 올라간 곱슬머리를 말합니다. (사전 참조)

이긴자께서 나발(螺髮)을 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이 최우선으로 말하려는 바는 명백합니다. 이긴자께서 바로 상호(相好)를 갖춘 생미륵부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주님이 전륜성왕(轉輪聖王)이요 생미륵불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장면이기



<부처의 나발(螺髮)>

도 합니다. 해서 이긴자께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해 주신 것이지요.

둘째로 머리카락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머리카락은 두피에서 솟아올라 머리를 뒤덮고 있으니 머릿속에서 올라온 생각이나 마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꿈에 더러운 머리가 나오면 내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더러워진 것으로, 머리를 감거나 깔끔하게 다듬는 장면은 반대로 내 마음이 정갈해지고 정돈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서는 한문 파자(破字)를 통해 머리카락의 의미를 풀어나고 계십니다. 이렇게 파자를 통해 천기를 밝히는 것은 의인들의 공통점입니다만, 애초에 왜 한자를 그토록 중히 이용하시는 걸까요?

한자는 상형문자로서 ‘사물의 형상’을 글자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형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마귀 신의 융합의 결과치이며 따라서 그 형상은 두 신(神)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을 합치면, 상형문자인 한자의 형상 자체에 이미 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의 용어를 빌자면 한자는 그 형태적 표상, 기표(記表, Signifiant)와 그 안에 내포되어있는 영적 의미 즉, 기의(記意, Signifié)가 일치하는 문자입니다. 해서 그 글자의 형태를 물리적으로 적절히 해체하면 그 형상 안에 숨어있는 마귀와 하나님의 신의 내용이 풀려나옵니다. 즉, 상형문자인 한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마귀 신, 얽혀있는 두 신(神)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해서, 머리카락도 파자(破字)로 접근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머리카락 즉, 모(毛)는 숨을 은(隱)+삼(參)입니다. 가운데 올라온 은(隱)자는 마음 심(心)의 약자입니다. 터럭 삼(參)은 이 마음(L)을 뒤덮고 있는 무의식의 여러 층과 인두겍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모(毛)자는 무의식과 인두겍을 뚫고 올라오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긴자께서 ‘털 모(毛)자와 마음 심(心)은 생긴 게 비슷해. 마음 이야기’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해서 머리카

락이 고무고 똑같은 것을 ‘마음이 고무고 항상(恒常)하다는 것’이라 해석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머리카락을 꿈꾼 자의 마음 상태로 풀어 주셨습니다. 꿈꾼 분의 머리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은 이긴자 하나님을 타자(他者)로 볼 것이냐, ‘나’ 자신으로 볼 것이냐의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저 ‘주님’이고 ‘남’인 자에게는 부처님의 나발(螺髮)이 자신의 머리일 리 없고, 신성모독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임을 아는 자에게는 이 해석이 지극히 타당하고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꿈꾼 분은 주님을 뵈는 것이기도 하고 거울로 되비추듯 자신의 진면목(眞面目)을 본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본 주님은 미륵부처이자, 꿈꾼 자 자신입니다. 해서 주님은 당신의 머리를 꿈꾼 성도의 머리, 마음이라 풀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될 수 있는’ 토대, 그 대전제를 마련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 성도 11

“꿈에 눈이 왔어요.”

### 이긴자

“꿈에 눈이 왔어? 야, 그거 좋구나. 여러 분들, 꿈에 눈이 오면 그냥 뭐, 빨강고 노란 것이 다 덮이죠? 뭐로 덮여? 하얀 걸로 덮이죠? 그러니까 하얗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하하, 또?”

### 주해(主解)

: 눈이 가지는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위의 말씀으로 모두 설명이 됩니다. 빨강고 노란 알록달록한 것들은 각자의 개성, 개체성(個體性)을 뽐내는 삼라만상입니다. 이는 노자가 말한 유명만물지모(有名萬物之母)의 세계 즉, ‘이름이 있는’ 세계는

각자의 이름을 가진, ‘남’과는 다른 ‘나’들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저 한(恨)스럽고 비참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였던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 의해 갈기리 찢겨 해체되고 나뉘어진 모습이기지요.

이 알록달록한 개별 개체의 세상을 단일한 하나의 색, 그것도 성결(聖潔)하고 순수한 신성(神性)의 상징인 흰색 하나로 뒤덮어버리는 모습은 사바세계(娑婆世界)를 덮어버린 극락정토(極樂淨土)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예의, 의인들의 방식대로 파자(破字)를 통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雪)은 우(雨)+혜(慧)입니다.

보통 혜(慧)를 ‘빛자루’ 혜로 보아서 빛자루로 쓸 수 있는 비 즉, 얼음으로 된 비를 비유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뭐, 나름의 일리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참뜻은 몽땅 놓치게 됩니다.

사전적으로 혜(慧)의 첫 번째 훈(訓)은 ‘살별’ 혜입니다. 살별은 ‘화살처럼 생긴 별’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현대어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혜성(慧星, comet)입니다. 그런데 현대 천문학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혜성의 핵(核)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절묘하지 않습니까? 얼음으로 이루어진 혜성이 얼음을 마치 비처럼 떨어뜨려 눈이 되었다는 의미로 비(雨)와 혜성(慧)을 합쳐 눈설(雪)자를 만들었다고 해도 윗귀가 맞습니다. 옛사람들이 그것을 어찌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한자를 만든 옛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만들었을까요? 제 답은 ‘그렇다’입니다.

전 글에 말씀드렸듯 한자는 양소(仰韶) 문화에서 시작해 은대(殷代) 갑골문으로 발전된 동이족 고유의 문자입니다. 하나님이 단(檀)자파의 핏줄을 통해 한자를 만들어 그 안에 천기를 숨겨놓았으니 애초에 얼음덩어리인 혜성(慧)과 비(雨)를 합쳐 ‘얼음 비’, 눈 설(雪)자를 만들었다 해도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파자(破字)로 되돌아가 보겠



<주님 많은 포대화상 4>

습니다. 설(雪)은 우(雨)+혜(慧)입니다. 먼저 비(雨)는 하늘에서 내려와 만물을 소생시키고 키워내는 존재이니 말 그대로 생명의 은혜입니다.

혜성(慧)은 별입니다. 별은 영적 스타, 하나님의 신의 상징이니 비(雨)와 혜성(慧)을 합치면 ‘하늘에서 생명의 비처럼 내리는 별, 강림(降臨)한 하나님의 신’이 됩니다. 결국 흰 눈(雪)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비(雨)처럼 쏟아져 내리는 별이며, 별처럼 쏟아져 내리는 비(雨)입니다. 실제로도 혜성이 지구에 접근했을 때, 유성(流星)이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우(流星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자로 접근했을 때, 눈(雪) 내리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신이 인간세계에 강림하는 천지 합일의 장면이며, 하나님의 신으로 온 세상을 뒤덮어 미륵정토, 용화세계(龍華世界)를 건설하는 장면임을 더욱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화세계는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에 석가모니 입멸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실 미륵부처님이 친히 건설한다 약속된 세상입니다.

여기서 56억 7천만 년은 숫자나 시간이 아닙니다. 56억 7천만 년 또한 파자(破字)로 풀어야 그 안의 천기가 드러납니다.

십(十)은 가로로도 일(-), 세로로도 1이니 하나님의 신의 상징이요, 역(億)은 태양(日)의 한마음(-心)으로 우뚝 선(立)자(人)이니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난 의인(義人)입니다. 따라서 ‘5십 6억’은 각기 5번째, 6번째 인(人)을 뎌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입니다. 또한 여기서 7천의 千은 하나님(十)의 사람(人)이자 살리는 영인 두번째 아담의 상징이니 ‘7千’은 7번째 인(人)을 뎌 아담 이긴자입니다.

해서 ‘56억 7천만 년’은 시간이 아니라 5, 6, 7번째 인(人)을 뎌 의인들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는 계시록의 ‘14만 4천’이 숫자가 아니라 十四萬, 四千으로서 각기 하나님, 해와, 아담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긴자의 파자(破字) 풀이와도 짝을 이룹니다.

해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시게 되어 있는 그 미륵불은 바로 삼위일체 완성의 하나님, 이긴자입니다.

“꿈에 눈이 왔어요.” 이 한 조각 꿈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넘칩니다. 꿈이 그렇습니다. 영적 상징으로서의 꿈은 언제나 화수분 같습니다.\*

金擇 / 의사 kimtaek8@nate.com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자유율법: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길 The Law of Liberty: How Human Becomes God

자유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 No one can be saved without keeping the Law of Liberty.

자유율법을 지키는 데에 가장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주체 의식이다.  
▶ The most enemy in keeping the Law of Liberty is the Awareness of I.

나라는 주체 의식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뜨려 자유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다.  
▶ The Awareness of I keeps tripping over God's heart and making the human violate the Law of Liberty.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날게 되면 썩을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 When human becomes God and can fly, he/she will no longer need to eat perishable food.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100%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다.  
▶ When the Victor Christ's Spirit takes control human and when the Victor Christ's Spirit is 100% full, human will change into God's body.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자유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 The way for human to become God is to keep the Law of Liberty.\*

by Alice

# 성모님의 태몽과 새벽별 이름, 조현 선생의 예언

### ...1면에 이어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한학을 하시는 분이요 당시 외손자가 이 세상에서 큰일을 할 것을 아신 것이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업고 다니면서 당부한 것이, “희성이, 너 내말을 잘 기억해라. 너는 앞으로 엄청난 큰일을 할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말은 너희 아버지나 엄마한테도 얘기하지는 마라. 이걸 말했다가는 너는 죽는다. 너는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어린 외손자에게 이같이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희성님은 세상에서 큰일을 한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외손자가 새벽 4시에 태어났다고 하여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려고 했는데, 새벽별은 밝은 별인 고로 밝은 희(熙)자, 별 성(星)자로 ‘희성’이라고 작명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할아버지를 주장하시어 틀림없는 구세주가 갖게 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목시록 2장 26절로부터 28절에 “이제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민족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라



본부재단 남정년 주관으로 계양산 답사

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 조현 선생의 예언(豫言)이 적중되다

조희성님이 태어난 김포 감정리는 중봉(重峯) 조현(趙憲)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 조현(趙憲)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사충신(四忠臣)으로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매우 훌륭한 충신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왜적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조정에 상소(上疏)를 올

리고 또한 직간(直諫)을 하였다고 함경도로 또 옥천으로 귀양을 가셨던 것이다.

그때 병력을 준비하였더라면 임진왜란 때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때가 임박하니 귀양살이 중에서도 의병을 모아 활쏘기 연습과 창칼 쓰는 법을 익히게 하였고 왜병이 쳐들어올 때, 너무나 활을 많이 쏘아서 열 손톱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활을 쏘아 발톱도 다 빠지고 700명의 의병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를 하였다고 전한다.

이처럼 훌륭한 조현(趙憲)선생은 “이 부락(김포 감정리坎井里)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큰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오시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예언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조희성님의 친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친손자가 조현선생이 예언한 인물임을 일찍이 아시고 금지옥엽으로 키워왔는데 6.25전쟁 때 인민군들에게 붙잡혀 포로로 복송된 이후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가운데 친손자가 고향 김포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 속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조희성님이 포로생활 3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자신을 그토록 기다리셨던 할아버지께서 2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매우 애도하셨다.

할아버지는 “우리 희성(熙星)이가 장차 큰일을 할 골상을 지녔어. 손에는 임금 왕자의 손금이 있고, 가슴에는 북두칠성에 해당하는 점이 있으니 큰 인물이 될 것이 틀림없어.”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친손자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